

사슴 부제병 남의 일 아니다

- 수입사슴에서 더욱 기승 부려 -

사슴사육 농가들이 부제병(발굽썩음병)으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엘크의 경우 생각이상으로 부제병이 심각하여 폐사되는가 하면 사슴의 정상발육에도 영향을 미쳐 시급히 대책마련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이와같이 부제병이 농가들의 골치거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수입사슴이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사슴사육 농가들에게 부제병은 남의 일처럼 여겨져 왔는데 2년전부터 부제병이 농가에 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부제병으로 폐사된 사슴이 빈발함에 따라 이제 부제병은 남의 일이 아닌 양록농가에서 조속히 퇴치해야 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사슴중 수입사슴에서 더욱 부제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는 사슴검역계류장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부제병은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검역대상이 아니다. 동물검역소에서 법정전염병만을 검역할 뿐 부제병은 관심밖의 질병일 뿐이다. 부제병에 걸린 사슴이라 할지라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절차를 거쳐 농가에 입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물검역소에서 오히려 질병에 감염되어 사슴이 방

출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수 없다. 조속히 검역소는 부제병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소독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가에서 수입사슴을 분양받는 것은 부제병에 걸린 사슴을 입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특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입사슴 입식을 절대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 사슴검역계류장이 부제병으로 오염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가? 처음에는 계류장도 부제병으로 오염되지 않았을 것이나 일부 수입사슴중 부제병에 걸린 사슴이 계류장을 오염시켜 그렇지 않은 사슴에도 감염시켰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멀쩡하던 사슴도 일단 검역계류장을 거쳐 나오면 부제병에 오염되어 농가에 분양되어 자탄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몇년사이 수입사슴을 입식하여 사육중인 어느 양록농가는 최근에 들어오는 수입사슴은 거의 1백% 감염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수입사슴을 분양받은 사실 자체가 자업자득이라고 말하는 이 양록농가도 현재 엘크의 부제병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부제병에 걸린 수입사슴을 별다른 생각없이 한두마리 입식한 기존 양록농가도 이 수입사슴의 영향으로 농장이 오염되어 부제병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타 농가로부터 사슴을 분양받을 때 그 농가가 수입사슴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도 자기농장



△ 발굽을 손질하고 있는 장면

의 사슴을 부제병으로부터 차단시키는 일환이다.

우리 양육농가에서 그동안 부제병은 관심밖의 질병일 뿐이었다. 사슴이 부제병에 걸릴 것이라는 것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엘크를 사육하는 양육농가는 부제병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사슴의 질병을 다루는 서적에서 부제병(발굽썩음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참고로 소개한다.

<원인> 세균감염에 의해서 발병한다. 즉 사육장 내의 바닥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거나 습윤(濕潤)한 초지에서의 방목, 썩은 부분의 짚아내기를 태만히 하는 것이 주원인이다.

<증상> 처음에는 가볍게 절며 발굽에 열이 있다. 환부는 약간 습윤하게 되며 악취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병세가 진행함에 따라 농양(膿瘍)을 형성한다.

중증에서는 염증이 뼈와 인대(靭帶)에까지 진행하여 발굽의 각질부(角質部)는 잘게 부서져 발굽의 변형, 탈락으로까지 이른다. 이와 같이 되면 식욕감퇴가 되고 영양도 떨어져 쇠약해 진다.

<치료> 따로 격리시킨 뒤 사료를 먹기 위해 지나가는 통로를 좁고 길게 통과하게 만들어 길이 2m정도의 수조(水槽)를 알개 만들고 약액을 희석하여 두면 사슴이 통과할 때마다 약물이 흡수되어 쉽게 치료된다. 약제로 과망

간산가리(KMnO₄) 0.05%가 좋다.

발굽이 완치될 때까지 건조한 곳에 있도록 하고 상처에 구정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발병이 되면 보정이 어려워 치료 예후가 불량하므로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 * * * *

사육장내가 심하게 오염되어 있거나 배수구가 없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질척질척한 땅에서 사육하였을때 많이 발병되며 발굽이 물렁물렁하여 조그만 상처에도 쉽게 감염될 수 있으며 급속히 증세가 악화된다.

발통이 썩어들어가는 균의 번식으로 인하여 치유가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환부를 소각하여 침투를 막도록 하고 건조한 사육장에서 치료하여야만 치료효과를 올릴 수 있다.

증상을 보면 파행을 하며 자세히 관찰하면 발굽주의가 붓고 염증상태도 때론 관찰될 수 있다. 심하면 괴사되어 조직의 탈락도 될 수 있다.

치료로는 환부를 깨끗이 소독한 후 괴사된 조직은 깎아내고 소각시키고 목타르 같은 것을 발라 수분 침투를 막아주며 고단위 항생제 및 소염제를 주사하고 부제병 예방용 스프레이를 뿌려준다.

부제병에 걸린 사슴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농장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양육농가는 고민해야 한다.

녹용을 절각한 후 발굽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이상유무를 판단하여 치료해야 한다. 치료는 한두번으로 끝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예후의 정도에 따라 전문수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양육농가에서도 사슴이 한마리씩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통과할 때마다 사슴발목이 꼭 잠길 수 있도록 소독조를 만드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사슴이 소독조를 통과하다 보면 부제병 또한 설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시설을 해놓은 사슴농장은 보지 못했다.*